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(5.21.)

-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서,
민생 물가와 증동전쟁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우선, 지난 4차 회의(3.11)에서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
계란·밀가루 담합 건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말씀드립니다.
-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계란산란계협회가
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,
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
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- 생산자 단체의 기준가격에 따른 공동행동은
생산자 간 가격 경쟁을 막아
소비자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.
- 이처럼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
농식품부도 정책 지원 배제, 협회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
계란 산지가격 검증·발표 체계를 마련하는 등
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.
- 이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공정행위 적발이
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.
- 이어, 지난 5월 19일에는 7개 제분사 담합에 대해
과징금 총 6,710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.

- 밀가루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(主食)으로서 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정부는 할당관세, 가격 안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사업자들에게 해왔습니다.
-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여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 엄정히 제재한 것입니다.
- 아울러, 지난 인쇄용지 담합에서와 같이, 담합 전 수준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회복된 밀가루 가격 정상화를 위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했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하였습니다.
- 늦게나마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.2% 인하하였고,
 - 지난 3월 공정위·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, 라면,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
- 공정위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도 신속 대응 중입니다.
 -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입니다.
-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하여,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국토교통부 1차관 모두발언(5.21.)

- 주거비는 국민들께서
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셔야 하는
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입니다.
- 국민의 70%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
미세한 등락조차
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
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- 정부가 관리비 가격 수준에
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,
-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
선제적으로 막는 것은
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
- 공동주택 관리비는
산정·부과·집행·공개 등
일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
부당하게 인상될 우려는
낮다고 하더라도,
-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
사전에 차단하고
- 공동주택 내 공사·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
내실화한다면
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
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
□ 오늘 보고드린 제도개선 방안들은
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,

-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
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
'민생 안전망'의 구축입니다.

□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
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여

- 국민들께서
"내가 내는 관리비가
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"는
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